

## 2024학년도

### 안남초등학교

#### 6학년 졸업

드디어, 오일즈가 속해있는 6학년이, 2월 14일부로 졸업합니다. 졸업식은 안남관에서 10시 30분~11시 30분 (예정) 까지 진행되며, 우리가 작년에 해드린 노래 불러드리기는 이번 5학년은 안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졸업장 전달, 장학금 전달 등은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일즈를 존재하게 해주신 배민혜 선생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오일즈는 안남중, 대방중, 삼정자중 등으로 흩어져 각자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오일즈의 추억 만큼은 잃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유진 기자

## 오일신문 발행

### 2월 14일부로

#### 중단되어...

2월 14일부로, 편집장, 기자 등을 포함한 오일신문 관계자들이 모두 졸업하게 되면서, 이번 오일신문이 마지막 오일신문입니다. 기자: 오일신문을 만들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추억을 물감적으로 남겼것 같고, 또 내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는것이 좋았습니다. 독자 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장: 중학교 가서도 시간되면 가끔씩 오일신문을 할 수도 있으니, 완전한 중단은 아닙니다 ^^ 그동안 오일신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유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 탄핵 재판, 오늘

#### 8차 변론 기일

지난 11일 진행된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는, 다양한 증인들과 공방전을 벌인 끝에, 오전 10시에 시작했던 7차 변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6시 20분쯤 나오며 끝이 났습니다. 8차변론은 오는 1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1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합니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날 국민의 힘은 계엄 사태 원인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입법 독재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최근 실용주의를 내세워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중성을 비판할 방침입니다

- 기자

## 제주항공 참사

지난 12월 29일 일어났던 제주항공 참사는 조사 결과, 한국인 탑승자 173명과 태국인 탑승자 2명, 승무원 4명이 모두 사망하였고 승무원 2명은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비행기의 기종은 보잉 737-8AS로 이미 2021년 한번 사고가 났던 기종입니다. 사고 원인은 버드스트라이크 때문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한것으로 보

입니다. 또한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너무 짧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손유진 기자

## 트럼프 파리협정

### 탈퇴...국제사회,

### 기후 대응 후퇴

####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에 서명하면서 국제 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이 다시금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온실가스 배출국 2위인 미국이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한 것은 "해롭고 수치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기후 변화 회의론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과 유엔에 보내는 통보 서한에 서명했다. 2017년 첫 임기 때 협정에서 탈퇴한 결정을

반복했다. 파리 협정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 협정이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하고, 가능한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해 이행하기로 했다.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Net Zero Emissions)을 달성하자는 장기 목표도 세웠다. 전 세계 195개국이 협정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정 탈퇴는 이번에도 '유엔 통보 후 1년' 유예에 따라 2026년 1월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송진원 기자

## ABS 오일신문

## "학교 휴대폰 금지, 성적·정신건강·수면 증진 효과 없어" [YTN]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도 학생의 성적이나 정신건강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5일 영국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영국 버밍엄대는 최근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 수면과 운동 수준, 학업 성취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 정책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유의미하게 줄이지 못했습니다. 하루 사용 시간 총량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제한적인 학교 전화 정책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복지 또는 관련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결과는 영국 보수당

정부가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 지침을 내린 지 딱 1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보수당은 지난해 말 이런 지침에 강제성을 부여하려고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다만, 현 노동당 정부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국 내 학생 1,227명과 중등학교 30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는 지난해 4월에 발표된 영국의 중도 우파 싱크탱크의

연구 결과와는 배치됩니다. 폴리시 익스체인지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162개 중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금지가 시행된 학교가 정부의 공급학교 등급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싱크탱크는 휴대전화 금지와 학교 성적 간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고 학생 복지에도 이점이 있다

면서 교직원들이 이 조치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버밍엄대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학생의 정신건강을 물론이고 교실 내 행동, 신체활동 수준, 수면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만으로는 휴대전화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해

소하긴 힘들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이번 연구 결과가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 정책을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런 정책은 청소년의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접근 방식과 연계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웅진 기자

2025. 02. 13. / No. 12

기사의 저작권은 ABS, 오일 신문에 있습니다.